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04-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4 교육인식조사] 대학 진학 필요성과 사교육 인식

2024. 11. 6.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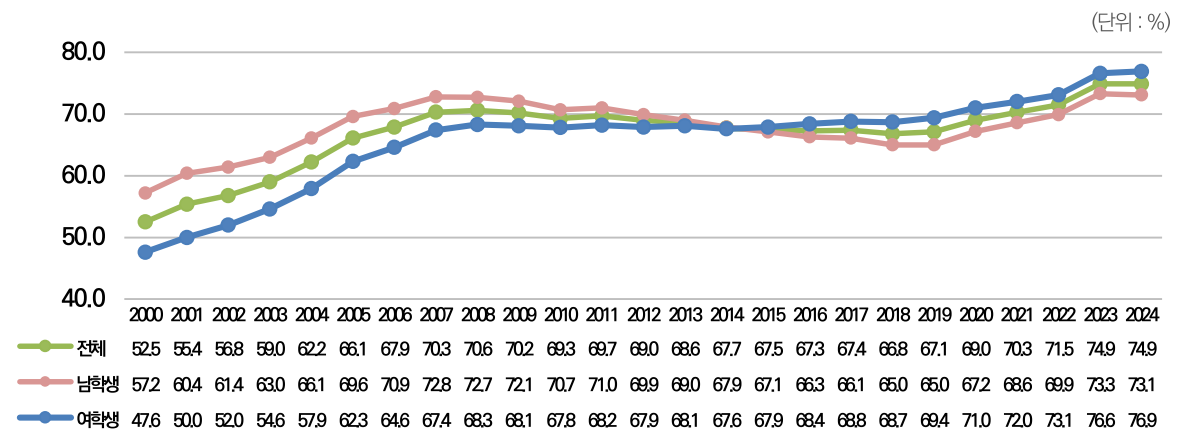
1 대학 취학률의 변화

2024년 대학 취학률 74.9%(남학생 73.1%, 여학생 76.9%), 지난해 이어 역대 최고 수준

우리나라의 2024년 대학 취학률은 74.9%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024년 11월 5일 기준). 취학적령인구 4명 중 3명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이후 남녀 모두 대학 취학률이 70%를 넘었으며, 특히 2024년 여학생의 대학 취학률은 76.9%로 남학생(73.1%)보다 3.8%포인트 높다. 이는 2020년(남성 67.2%, 여성 71.0%, 격차 3.8%포인트 차이)이후 가장 큰 차이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국민의 대학 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교육지표 2024(Education at a Glance)'에 따르면, 만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대졸 이상)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만 25-64세 성인 고등교육 이수율 또한 OECD 평균(40.7%)를 넘어선 54.5%로 집계되었다.

2024년 대학 취학률 74.9%(남학생 73.1%, 여학생 76.9%), 지난해 이어 역대 최고 수준



자료: 교육단계별 남녀 취학률 중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주석: 취학률 = (재적학생수 ÷ 취학적령인구) × 100.

고등교육기관 취학적령은 만 18-21세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각종 대학 과정 등을 포함하여 집계함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 필요하다 69%, 필요하지 않다 29%
2021년 이후 대학 진학 필요하다는 인식은 최소 65% 이상

올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69%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2021년 이후 꾸준히 6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65% → 65% → 68% → 69%), 성별이나 세대, 학력과 관계없이 최소 3명 중 2명은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보편적으로 굳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 필요하다 69%, 필요하지 않다 29%

(단위 : %)



2024년 조사결과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모르겠다
전체	(1,000)	18	51	25	4	69	29	2
성별								
남자 (493)		19	50	24	5	69	29	2
여자 (507)		17	52	26	3	69	29	2
연령								
18~29세 (157)		18	59	16	3	77	19	5
30대 (149)		12	53	26	5	65	31	3
40대 (176)		22	46	23	8	68	30	2
50대 (195)		22	46	26	5	68	32	0
60대 (175)		15	52	29	3	67	32	1
70세 이상 (148)		19	49	30	1	68	31	2
학력								
고졸 이하 (455)		19	46	28	5	64	33	2
대재 이상 (545)		17	55	22	4	72	26	2
마성년 자녀 유무								
있음 (184)		24	46	22	6	70	29	1
없음 (816)		17	52	26	4	68	29	2

질문: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10. 29 ~ 11. 01 // 2022. 10. 28 ~ 31 // 2023. 10. 13 ~ 16 // 2024. 10. 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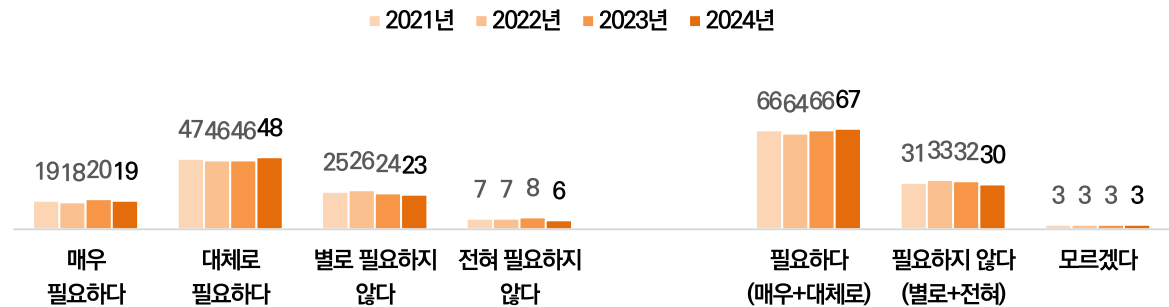
3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 위해 사교육 필요하다 67%, 4년 연속 60% 중반대 유지
18-29세,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4명 중 3명이 대학 진학 위한 사교육 필요성 인정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의 위상은 여전히 공고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67%이다.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2021년 이후 6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66% → 64% → 66% → 67%). 특히 가장 최근에 대학 입시를 경험한 18-29세(76%), 대학 입시를 경험하게 되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76%),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80%) 등일수록 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70세 이상(47%), 대학 진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57%)에게서 높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 위해 사교육 필요하다 67%, 4년 연속 60% 중반대 유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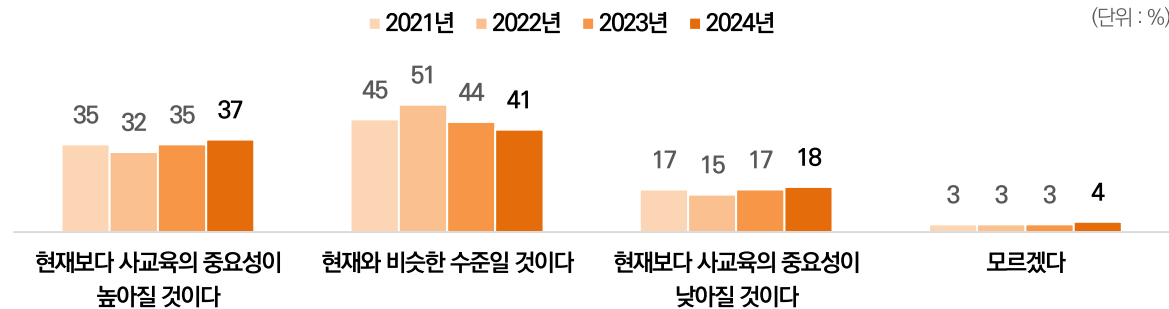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10. 29 ~ 11. 01 // 2022. 10. 28 ~ 31 // 2023. 10. 13 ~ 16 // 2024. 10. 11 ~ 14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중요성, 현재보다 높아질 것 37%, 비슷할 것 41%

(단위 : %)



질문: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10. 29 ~ 11. 01 // 2022. 10. 28 ~ 31 // 2023. 10. 13 ~ 16 // 2024. 10. 11 ~ 14

현재보다 사교육 중요성 높아질 것 37%, 비슷한 수준일 것 41%

30대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절반 가량이 사교육 중요성 높아질 것으로 전망

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앞으로도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37%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41%이다.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최소한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 넘는 것이다. 특히 18-29세에서는 53%, 30대에서는 47%,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에서는 46%가 앞으로 사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18-29세,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4명 중 3명이 대학 진학 위한 사교육 필요성 인정하고,
현재보다 사교육 중요성 더 높아질 것이라는 데에도 절반 가량이 공감

(단위 : %)

	사례수 (명)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성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전망			
		필요하다 (매우+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별로)	모르겠다	현재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현재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전체	(1,000)	67	30	3	37	41	18	4
성별								
남자	(493)	63	33	4	32	42	23	3
여자	(507)	72	26	3	41	41	14	4
연령								
18-29세	(157)	76	16	8	53	30	11	7
30대	(149)	74	23	3	47	36	13	4
40대	(176)	70	27	3	44	38	13	4
50대	(195)	70	29	1	31	47	20	2
60대	(175)	60	36	4	25	47	27	1
70세 이상	(148)	52	47	1	22	50	26	3
학력								
고졸 이하	(455)	62	35	3	30	46	21	3
대재 이상	(545)	71	25	3	43	37	16	4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184)	76	23	1	46	38	14	2
없음	(816)	65	31	4	35	42	20	4
대학 진학 필요성								
필요하다	(687)	80	18	2	41	44	12	2
필요하지 않다	(293)	39	57	4	27	36	33	4

질문: 사교육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 전망: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11 ~ 14

4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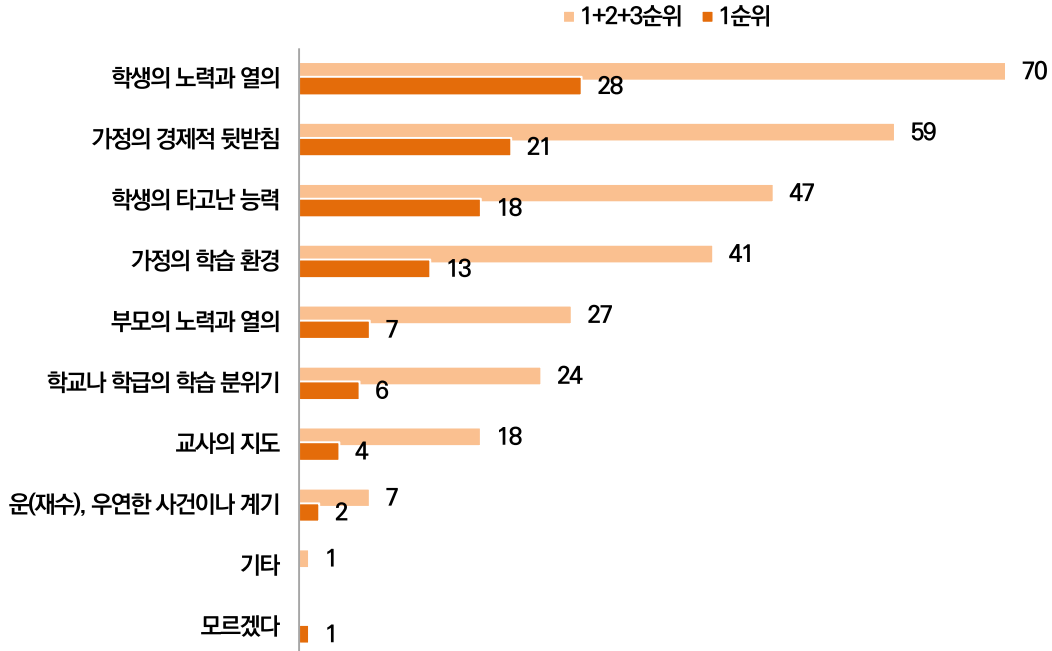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은 학생의 노력과 열의, 여전히 가장 높아 공교육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낮은 수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2022년](#) 및 [2023년](#)과 인식 변화가 크지 않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의 노력과 열의'라는 사람이 가장 많다(70%, 1+2+3순위 기준). 이어서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59%)', '학생의 타고난 능력(47%)', '가정의 학습 환경(41%)', '부모의 노력과 열의(27%)' 등이 뒤를 잇는다. 학생의 학업 성취에 있어 학생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 요인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된다.

반면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24%)', '교사의 지도(18%)' 등 공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학생 요인, 가정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공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인식은, 3명 중 2명이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앞선 조사 결과와 이어진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은 사교육 의존도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공교육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은 학생의 노력과 열의, 여전히 가장 높아 공교육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낮은 수준

(단위 : %)



질문: 다음 중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큰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최대 3순위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11 ~ 14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9월 기준 약 95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4,373명, 조사참여 1,35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9%, 참여대비 73.9%)
조사일시	• 2024년 10월 11일 ~ 10월 1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